茶를 아낀 옛사람들 한잔에 담긴 멋…풍류…인생…

남도에서 햇차 수확이 한창인 요즘, 서점가에도 차 향기 가득 담긴 책들이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5월 25일 차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차 문화의 명맥을 이어온 차인을 기리는 책 3권을 소개한다.

초의선사
곽의진 지음 | 동아일보사 | 9천8백원
역사 속의 우리 다인
천병식 지음 | 이른아침 | 1만5천원
다불
정찬주 지음 | 랜덤하우스중앙 | 8천5백원

우리 차문화 명맥 이어온 차인들의 이야기 잇따라 나와

소설가 정찬주 씨가 쓴 **<다불>**은 신라 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九華山)에서 정진하고,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김교각(金喬覺, 696~794) 스님의 일생을 소설로 옮긴 것이다.

등신불(等身佛)로 잘 알려져 있는 김교각 스님은 특히 차(茶)를 사랑해 신라에서 금지차(金地茶)씨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차를 퍼뜨리며 차로 정진, 선다일여(禪茶一如)로 부처가 된 '다불(茶佛)'로도 유명하다. 김교각 스님은 세납 99살, 구화산에 들어온 지 75년 만에 법상 위에서 입적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법체가 썩지 않자 문도들이 탑을 세워 그곳에 육신불로 안장했고 그 탑의 이름을 육신보전이라 했다.

소설은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차 연구가인 임 박사가 대원사 주지 고현 스님과 함께 중국 구화산으로 김교각 스님의 자취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임 박사는 스님의 행적을 뒤쫓으며 우리 차가 김교각 스님에 의해 중국에 전래돼 그곳의 명차가 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또한 스님의 본명으로 알려진 '교각'은 중국에서 '대각(大覺)'을 뜻하는 의미로 붙여진 것이므로 '지장 스님'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 진리를 찾고자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스님의 생애와 치열한 열정을 그리고 있다.

초의 선사가 주석했던 대흥사 일지암.

<역사속의 우리 다인>은 지난해 타계한 故 천병식 교수가 신라시대의 명문장가 고운 최치원을 비롯해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인 초의선사, 현대 차문화 이론을 정립시킨 효당 최범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인 20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차학회 회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차와 관련된 역사인물들의 멋과 풍류가 어우러진 차생활을 정갈한 필치로 전한다.

책에 담긴 차인들의 생애를 읽다보면 우리 민족의 차생활 흐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사원을 중심으로 차문화가 발달하여, 다법(茶法)도 정립되었고 차를 마시며 멋과 풍류를 즐기는 다인들도 많아졌다. 청평거사라 불렸던 고려시대의 문인 이자현(1061~1125)은 임금에게 차와 탕관을 하사받았고, 유불도의 삼교가 하나로 이어진다는 '삼교일리(三敎一理)'를 주장했던 문인 원천석(1330~?)은 고향의 치악산에 은거하며 차와 더불어 생활했다. 고려 말 고승 나옹 혜근선사(1320~1376)는 도(道)를 묻는 수행자에게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는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숭유억불(崇儒抑佛)을 내세운 조선이 들어서면서 차문화도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사찰이나 사대부 집안에서는 차문화가 끊이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율곡 이이와 사계 김장생 등은 제례에 차를 올리도록 권장했으며, 한재 이목(1471~1498)은 <다부(茶賦)>를 지어 남기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우리의 차문화는 중흥기를 맞게 되는데, 그 중심에는 초의선사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가 있었다. 그들이 사상과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자리에는 항상 차가 있었고, 직접 차를 만들어 주고받기도 했다. 차를 통해 교유하고, 그들의 교유를 통해 우리의 차문화는 더욱 깊어진 것이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차문화는 암흑기를 맞는다. 커피와 일본식 차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전통 차문화는 그 존재 자체가 잊혀져 가는 듯 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효당 최범술과 의재 허백련을 중심으로 다시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우리 차문화는 1970년대 '우리것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차문화의 중흥조라 불리는 초의선사

초의선사 영정.

(草衣禪師, 1786~1866)의 생애와 사상은 소설가 곽의진 씨가 지은 평전 **<초의선사>**에서 더욱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지은이는 초의 선사의 행적을 따라 진도와 강진, 해남 등 전국 각지를 답사하며 조선후기의 선승으로 차(茶)문화를 널리 보급한 초의 선사의 생애를 펼쳐 보인다. 스님의 출가에서부터 대흥사에 머물며 '초의'란 법명을 받게 된 사연, 다산 정양용과 추사 김정희와의 교유 등을 그리고 있다. 또한 초의 선사가 남긴 시와 그림을 통해 스님의 사상을 되새겨 본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부처님은 어떤 분이실까?

▮초파일에 읽을 만한 부처님 일대기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 일대기만큼 적합한 책은 없을 것이다. <불타 석가모니>(동쪽나라)를 우리말로 옮긴 법정 스님은 "그 사람을 모르고 그의 사상이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불타 석가모니의 경우처럼 그의 삶이 곧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말한다. '부처님 일대기'를 훌륭한 불교 입문서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처님오신날에 읽어볼만한 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현재까지 출간된 부처님 일대기는 연대기적 전기에서부터 그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학술서,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책 등 50여 권 정도. 그 중에서 꾸준히 읽히는 책으로는 와타나베 쇼코의 <불타 석가모니>(동쪽나라)와 박경훈 씨의 <부처님의 생애>(불광출판부), 부처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소설인 헤르만헤세의 <싯다르타> 등을 꼽을 수 있다.

<불타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다른 종교와 사상계의 움직임 등을 폭넓게 조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 일대기 책 중에서는 드물게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본생담>에 전하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부처님 생애를 되짚어가면서 그 가르침을 익히도록 구성돼 있다. 헤르만헤세의 <싯다르타>와 소설가 유홍종 씨가 낸 다큐멘터리 소설 <붓다>(해누리), 전북불교대학교 강건기 학장의 <부처님 생애>, 법륜스님의 <인간 분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은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읽기에 알맞다.

<부처님,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시다, 이렇게 가셨네>(아슈바고사 지음, 정태혁 옮김, 여시아문)는 붓다의 전 생애를 전해주는 전기로, 인도의 시인인 아슈바고사(馬鳴)가 기록한 시문(詩文) 형식의 <붓다차리타>를 번역한 책이다.

이 밖에 어린 싯다르타의 이야기를 담은 <싯다르타의 길>(데이비드 깔루빠나 외 지음, 재연 스님 옮김, 숨)과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 폴커 초이츠의 <붓다>(김경연 옮김, 한길사),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의 <불타의 세계>(김영사)도 손꼽히는 부처님 일대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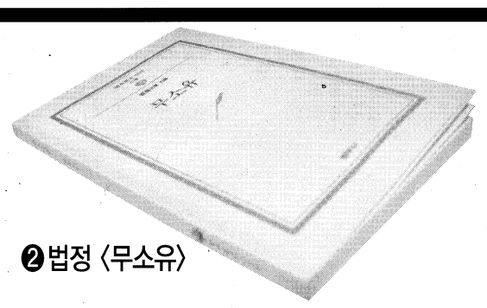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티벳
佛敎 성지순례
카일라쉬(수미산) 대탐사 24일 / 345만원
■ 5월 25일 - 출발 확정, 6월 23일, 7월 27일, 8월 3일
인천/성도-라사-장체-사가체-라체-사가-파망-다르첸-카일라스코라-구계왕국-마나사로버호수-파망-사가-라체-에베레스트BC-텅그리-니얼람-카트만두-방콕/인천

패키지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89만원
티벳/네팔 문화탐방 11일
▶ 5/27, 6/3, 6/17, 7/15 ▶ 260만원

단체 배낭 상품
하늘호수(남초)로 떠나는 티벳 8일
▶ 5/21,6/18,7/16,7/20,7/27,7/30 ▶ 143만원
환상의 우정공로를 횡단하는 티벳/네팔 12일
▶ 5/21, 6/18, 7/23, 7/30 ▶ 173만원
티벳/네팔/인도 23일
▶ 6/20, 7/4, 7/29 ▶ 239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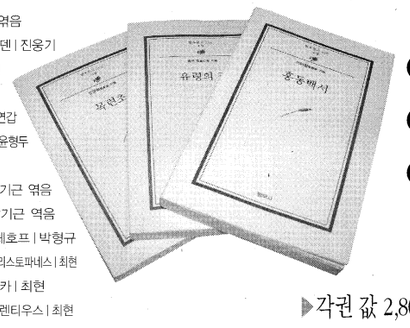
티벳 전문 혜초여행사(주) (02)733-3900 / www.hyecho.com



주머니 속의 작은 친구 범우문고

❷법정 〈무소유〉

1 수필 피천득
3 바다의 침묵(외) 베르코르 | 조규철·이정림
4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 | 진웅기
5 오, 고독이여 F.니체 | 최혁순
6 어린 왕자 A.생 텍쥐페리 | 이정림
7 톨스토이 인생론 L.톨스토이 | 박형규
8 이 고용한 시간에 김우종
9 시지프의 신화 A.카뮈 | 이정림
10 목마른 계절 전혜린
11 젊은이여 인생을… A.모루아 | 방곤
12 채근담 홍자성 | 최현
13 무진기행 김승옥
14 공자의 생애 최현 엮음
15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L.린저 | 곽복록
16 김소월 시집 김소월
17 장자 장자 | 허세욱
18 예언자 K.지브란 | 유제하
19 윤동주 시집 윤동주
20 명정 40년 변영로
21 산사에 심은 뜻은 이청담
22 날개 이상
23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24 애정은 기도처럼 이영도
25 이브의 천형 김남조
26 탈무드 M.토케이어 | 정진태
27 노자도덕경 노자 | 황병국
28 갈매기의 꿈 R.바크 | 김진욱
29 우정론 A.보나르 | 이정림
30 명상록 M.아우렐리우스 | 최현
31 젊은 여성을 위한 인생론 P.벅 | 김진욱
32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33 조병화 시집 조병화
34 느티의 일월 모윤숙
35 로렌스의 성과 사랑 D.H.로렌스 | 이성호
36 박인환 시집 박인환
37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38 창문 김태길
39 방랑 H.헤세 | 홍경호
40 손자병법 손무 | 황병국
41 소설·알렉산드리아 이병주
42 전락 A.카뮈 | 이정림
43 사노라면 잊을 날이 윤형두
44 김삿갓 시집 김병연 | 황병국
45 소크라테스의 변명(외) 플라톤 | 최현
46 서정주 시집 서정주
47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L.톨스토이 | 김진욱
48 불가능은 없다 R.슐러 | 박호순
49 바다의 선물 A.린드버그 | 신상웅
50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C.힐티 | 홍경호
51 딸깍발이 이희승
52 몽테뉴 수상록 M.몽테뉴 | 손석린
53 박재삼 시집 박재삼
54 노인과 바다 E.헤밍웨이 | 김회진
55 향연·뤼시스 플라톤 | 최현
56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R.릴케 | 홍경호
57 피천득 시집 피천득
58 아버지의 뒷모습(외) 주자청(외) | 허세욱(외)
59 현대의 신 N.쿠치키(편) | 진철승
60 별·마지막 수업 A.도데 | 정봉구
61 인생의 선용 J.러보크 | 한영환
62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F.사강 | 이정림
63 이동주 시집 이동주
64 고독한 산보자의 꿈 J.루소 | 염기용
65 파이돈 플라톤 | 최현
66 백장미의 수기 I.숄 | 홍경호
67 소년 시절 H.헤세 | 홍경호
68 어떤 사람이기에 김동길
69 가난한 밤의 산책 C.힐티 | 송영택
70 근원수필 김용준
71 이방인 A.카뮈 | 이정림
72 롱펠로 시집 H.롱펠로 | 윤삼하
73 명사십리 한용운
74 왼손잡이 여인 P.한트케 | 홍경호
75 시민의 반항 H.D.소로 | 황문수
76 민중조선사 전석담
77 동문서답 조지훈
78 프로타고라스 플라톤 | 최현
79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80 문주반생기 양주동
81 신조선혁명론 박열 | 서석연
82 조선과 예술 야나기 무네요시 | 박재삼
83 중국혁명론 모택동(외) | 박광종 엮음
84 탈출기 최서해
85 바보네 가게 박연구
86 도왜실기 김구 | 엄항섭 엮음
87 슬픔이여 안녕 F.사강 | 이정림·방곤
88 공산당 선언 K.마르크스·F.엥겔스 | 서석연
89 조선문학사 이명선
90 권태 이상
91 내 마음속의 그들 한승헌
92 노동자강령 F.라살레 | 서석연
93 장씨 일가 유주현
94 백설부 김진섭
95 에코스파즘 A.토플러 | 김진욱
96 가난한 농민에게 바란다 N.레닌 | 이정일
97 고리키 단편선 M.고리키 | 김영국
98 러시아의 조선침략사 송정환
99 기재기이 신광한 | 박헌순
100 홍경래전 이명선
101 인간만사 새옹지마 리영희
102 청춘을 불사르고 김일엽
103 모범경작생(외) 박영준
104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105 찰스 램 수필선 C.램 | 양병석
106 구도자 고은
107 표해록 장한철 | 정병욱
108 월광곡 홍난파
109 무서록 이태준
110 나생문(외)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 진웅기
111 해변의 시 김동석
112 발자크와 스탕달의 예술논쟁 김진욱
113 파한집 이인로 | 이상보
114 역사소품 곽말약 | 김승일
115 체스·아내의 불안 S.츠바이크 | 오영옥
116 복덕방 이태준
117 실천론(외) 모택동 | 김승일
118 순오지 홍만종 | 전규태
119 직업으로서의 학문·정치 M.베버 | 김진욱(외)
120 요재지이 포송령 | 진기환
121 한설야 단편선 한설야
122 쇼펜하우어 수상록 쇼펜하우어 | 최혁순
123 유태인의 성공법 M.토케이어 | 진웅기
124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125 인물 삼국지 모리야 히로시 | 김승일
126 한글 명심보감 장기근 옮김
127 조선문화사서설 모리스 쿠랑 | 김수경
128 역옹패설 이제현 | 이상보
129 문장강화 이태준
130 중용·대학 차주환
131 조선미술사연구 윤희순
132 옥중기 오스카 와일드 | 임헌영
133 유태인식 돈벌이 후지다 덴 | 지방훈
134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운
135 세계의 기적 박광순
136 이튀계의 활인심방 정숙
137 카네기 처세술 데일 카네기 | 전민식
138 요로원야화기 김승일
139 푸슈킨 산문 소설집 푸슈킨 | 김영국
140 삼국지의 지혜 황의백 엮음
141 슬견설 이규보 | 장덕순
142 보리 한흑구
143 에머슨 수상록 에머슨 | 윤삼하
144 이사도라 덩컨의 무용에세이 I.덩컨 | 최혁순
145 북학의 박제가 | 김승일
146 두뇌혁명 T.R.블랙슬리 | 최현
147 베이컨 수상록 베이컨 | 최혁순
148 동백꽃 김유정
149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A.베넷 | 이은순
150 평민한문학사 허경진
151 정선아리랑 김병하·김연갑 공편
152 독서요법 황의백 엮음
153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B.러셀 | 이재황
154 조선사 연구(草) 신채호
155 중국의 신화 장기근
156 무병장생 건강법 배기성 엮음
157 조선위인전 신채호
158 정감록비결 편집부 엮음
159 유태인 상술 후지다 덴 | 진웅기
160 동물농장 조지 오웰 | 김회진
161 신록 예찬 이양하
162 진도 아리랑 박병훈·김연갑
163 책이 좋아 책하고 사네 윤형두
164 속담에세이 박연구
165 중국의 신화(후편) 장기근 엮음
166 중국인의 에로스 장기근 역음
167 귀여운 여인(외) A.체호프 | 박형규
168 아리스토파네스 희곡선 아리스토파네스 | 최현
169 세네카 희곡선 세네카 | 최현
170 테렌티우스 희곡선 테렌티우스 | 최현
171 외투·코 고골리 | 김영국
172 카르멘 메리메 | 김진욱
173 방법서설 데카르트 | 김진욱
174 페이터의 산문 페이터 | 이성호
175 이해 사회학의 카테고리 막스 베버 | 김진욱
176 러셀의 수상록 러셀 | 이성규
177 속악유희 최영년 | 황순구
178 권리를 위한 투쟁 R.V.예링 | 심윤종
179 돌과의 문답 이규보 | 장덕순
180 성황당(외) 정비석
181 양쯔강(외) 펄벅 | 김병걸
182 봄의 수상(외) 조지 기싱 | 이창배
183 아미엘 일기 아미엘 | 민희식
184 예언자의 집에서 토마스 만 | 박환덕
185 모자철학 가드너 | 이창배
186 짝 잃은 거위를 곡하노라 오상순
187 무하선생 방랑기 김상용
188 어느 시인의 고백 릴케 | 송영택
189 한국의 멋 윤태림
190 자연과 인생 도쿠토미 로카 | 진웅기
191 태양의 계절 이시하라 신타로 | 고평국
192 애서광 이야기 구스타브 플로베르 | 이민정
193 명심보감의 명구 191편 이응백
194 아큐정전 루쉰 | 허세욱
195 촛불 신석정
196 인간제대 추식
197 고향산수 마해송
198 아랑의 정조 박종화
199 지사총 조선작



200 이어령 단편선 〈흥동백서〉
201 최인호 단편선 〈유령의 집〉
202 오정희 단편선 〈목련초〉

▶각권 값 2,800원 ▶계속 출간됩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www.bumwoosa.co.kr T.(02)717-2121 범우사